

“실리콘

패도 소중한 경험이다.” 벤처로 시작해 세계적인 검색포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의 CEO 래리페이지의 말이다. 구글에는 파산한 기업 출신 직원이 많은데,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그건 해볼 만하다’, ‘그건 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한다. 이는 그들이 실패로부터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배운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도 상치투성이의 우리 벤처업계를 부촉해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최근 벤처패자부활제도, 1조원 모태펀드 등 반가운 정책들을 선보이며 제2의 벤처신화 창조를 위한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실패로 혹독한 수업료를 치른 벤처기업들의 쓰라린 경험이 벤처산업 재도약에 양질의 거름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실패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귀중한 경험을 한 건전한 인력들이 다시 새로운 벤처를 통해 업계로 환류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90년대 말, 벤처업계에 과다 유입된 벤처자금으로 ‘묻지마 투자’가 유행하고, 코스닥 시장은 머니게임의 장으로 전락했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들이 과거의 벤처 거품을 또다시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MS, 오라클, 쉘컴 등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IT기업들도 초기에는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상장 후 혹은 이익 발생 후에도 핵심역량과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된 재투자와 한 우물을 파는 경영으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해도 과

O V E R T H E V E N T U R E

벤처여 다시 한번!

글 _ 고희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언이 아니다. 우리의 벤처들도 본연의 비즈니스와 R&D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탄탄한 기술력과 좋은 제품, 서비스로 어느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레퍼런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업계 분위기가 조성될 때 비로소 정부의 지원도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이는 MS, 쉘컴 등 거대 IT기업들도 2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다. 규모는 작지만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 중국 등지에서 이미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비롯한 충분한 성장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가진 전문기업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는가 곱씹어볼 일이다.

한편, 기업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성공의 비전으로 현재 취할 수 있는 안일함을 버리고 기술개발에 혼을 불사르는 개발자나 종업원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 벤처기업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성과배분 체제와 의사소통 구조를 갖는다면, 어떻게 대기업에서 나오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동지의식과 성과공유의 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대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벤처가 될 수 있다. 지식산업으로 가면 성공할까? 벤처가 우리의 지금 산업구조에 대한 돌파구일까?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해내든지, 굶든지 둘 중 하나다. 웰빙이 유행이고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작은 선물이라도 만들어주겠다고 ‘돌격’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시대에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